

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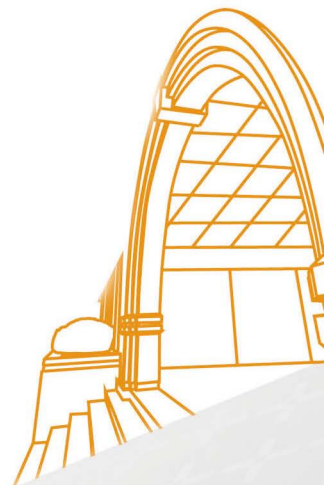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수행 과제 명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imail.re.kr

요약

이민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그간의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주로 언어 적응과 가족생활 초기 단계의 적응에만 두어져 왔음.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과정 중에 직면하는 각종 과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음.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이선·이아름·이은아(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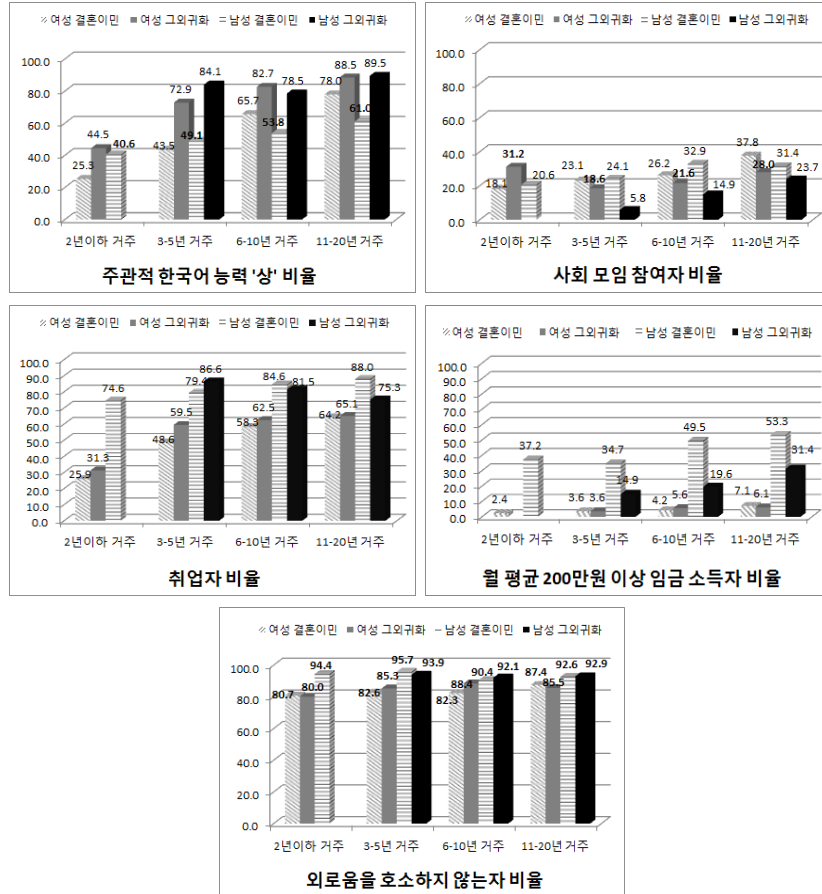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 2000년대 초부터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생활 10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2000년대 중후반에 결혼한 이민자들 역시 한국생활 초기에 직면하는 언어문제나 문화적 부적응 상황,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임·출산 시기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앞으로도 비교적 장기간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초기 적응단계를 이미 지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이때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생활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과제에 대응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자체가 언어 적응이나 가족관계 안정 등 특정한 과제의 해결만으로 완성되는 단선적 결과가 아니라 복합적 과제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역동적 과정
- 2000년대 초부터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적응과 가족생활 초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몇몇 측면에 초점이 두어졌을 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역동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과정 중에 직면하는 각종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양상,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사회통합 과정을 포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 결과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

-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 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생활 시작
 - 국내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의 사회통합 수준은 거주기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
 -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 양상의 성별·결혼이주 여부별 차이 발견
 - 한국생활 초기에는 여성이민자가 남성이민자에 비해, 여성이민자 중에서도 결혼이민자가 그 외 귀화자에 비해 사회통합 수준이 낮음([그림 1]).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로 인해 이제까지 익숙했던 일상생활과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 상태에 놓이는 등 심각한 외로움이나 우울을 경험
 - 기본적 한국어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임신·출산 등으로 탈구적 스트레스 악화
 - 취업을 염두하고 이주를 결정하는 여타의 이민자 집단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 당시 한국어나 취업 등 한국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 큼.
 -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적 한국어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출산 등의 생애사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초기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음.



[그림 1] 이민자 성별·결혼이주 여부별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

- 한국생활이 길어지더라도 취업자 비율, 임금 수준, 외로움 유무 등에 있어서는 성별격차 지속
-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 수준이나 종족적 배경 차이 이외에 성별 분리가 뚜렷한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출산 및 자녀 양육부담 등이 여성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초기 적응 단계 이후 ‘적응 2라운드’ 돌입

- 이주 초기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지만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민자로서 새로운 경험과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적응 2라운드’에 돌입
- 과제 1. 자녀의 성장에 따른 돌봄 역할 확대
 -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학부모 역할이 요구됨.
 - 한국에서의 사회화, 학교 교육 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의 초기 발달이나 자녀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
 -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 과제 2.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부양 부담 증가
 - 남편의 노령화와 자녀교육비 부담 등으로 취업 필요성 증가
 - 인적 자원이 비교적 적고,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인력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된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첫 번째 일자리는 공장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보조 업무와 같은 단순 일자리, 공공근로, 언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정도에 제한됨. 시간이 지나도 여성결혼이민자가 접근 가능한 일자리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음.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주관적 한국어 능력, 사회 모임 참여, 취업 여부 등이 거주기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엔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제 3.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
 -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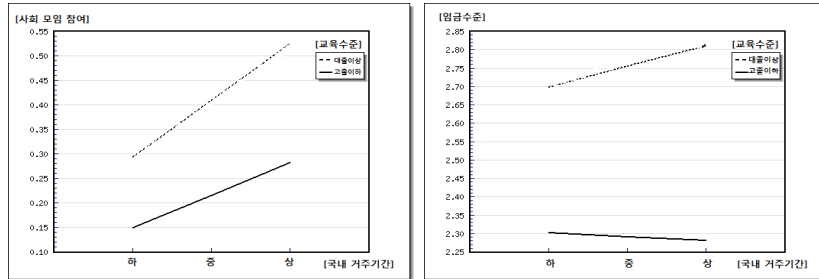
- 득, 취업 등의 각종 기회 접근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한국생활 초기 말이 통하는 동향 출신이나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들의 초기 적응에 있어 심리적,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함.
- 자녀 교육이나 구직 등에 도움이 될 만한 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망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낮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출신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시도 등으로 인해 한국인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경험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인적수준 요인으로서는 교육수준, 가족 내·외의 지지, 서비스 수혜 경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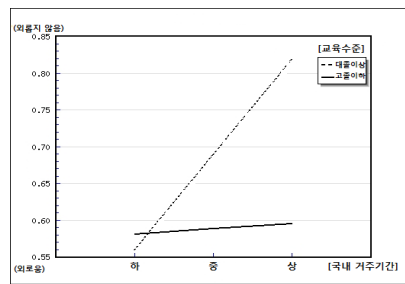
● 교육수준

- 개인의 역량과 인적수준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고 생활 경험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대졸 이상의 학력이 사회모임 참여나 임금 수준, 심리적 안정 등의 측면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변화속도를 가속화시킴([그림 2]).
- 국내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결혼이민자는 학업을 통해 보다 어려운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도 획득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한국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사회모임 참여

임금수준



외로움 여부

[그림 2]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교육수준과 국내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 가족 내·외의 지지

- 가족 내·외의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과정에서 직면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심리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
-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가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 가족 외부의 모국인, 한국인과의 관계 및 서비스 알선 기관·단체 활동가와의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활상의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결정적 계기와 지원을 제공

● 서비스 수혜 경험

- 이주 이후 상당기간 사적 영역에서 생활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서비스 기관 이용이 생활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

- 의사소통이나 부모역할, 취업 관련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생활에 긴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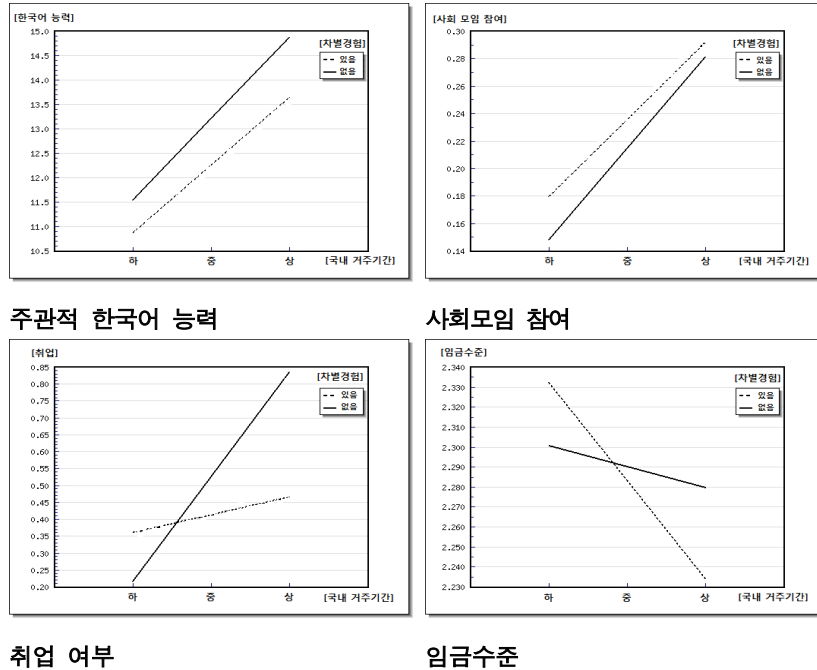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 경험, 자녀 양육 역할 등이 있음.

● 차별 경험

- 차별 경험은 거주기간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한국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능력이나 자녀교육, 취업 등을 위해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해 기대만큼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에 놓임.

● 자녀 양육 부담

- 초기 적응 단계 이후 가족의 생애주기가 변화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습득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요구가 증가함. 이때 자녀양육 부담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그림 3]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차별경험과 국내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3 정책제언

제안1) 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가는 역동적 과정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사회통합 단계별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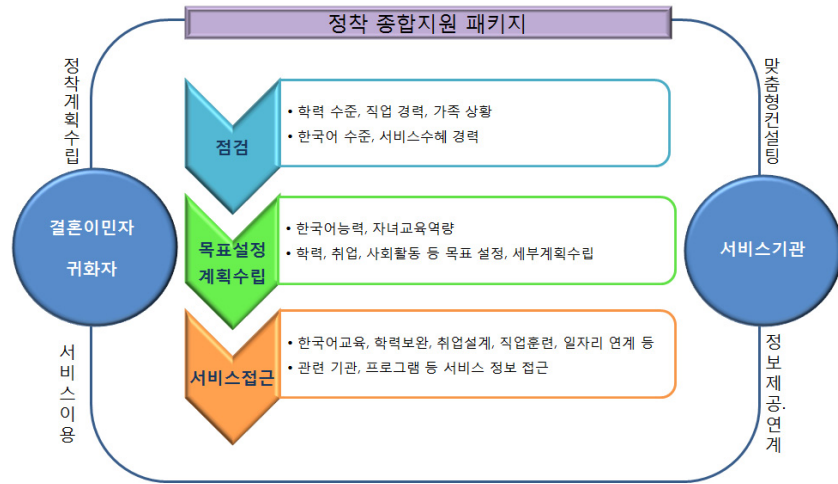
● ‘초기적응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기 적응 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부적응, 사회적 고립과 같은 탈구적 상황(dislocation)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한국어교육-상담-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초기적응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우며,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지지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초기 적응 촉진’이라는 본연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 ‘결혼이민자 정착종합지원 패키지(가칭)’ 개발

- 초기 적응단계 이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자로서, 생계부양자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함.
- 결혼이민자 개개인이 자신의 정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예측하며 개인적, 가족적 상황을 고려해 정착 목표와 진로를 설정하는 기회가 필요함.
- 결혼이민자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한 결혼이민자들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조모임 활동 등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 정착 목표 설정 툴’과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결혼이민자 정착종합지원 패키지(가칭)’ 개발을 제안 ([그림 4])



[그림 4]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의 기능

제안2)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 변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적절한 지표 개발 필요
- 사회통합 진전 관련 측정 문항 보완 및 개발
 - 심리적 안정과 관련된 문항, 객관적인 한국어 능력 측정 문항, 이주 전후의 취업 여부나 임금 수준 변화 등 경제적 통합 진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 마련
 - 이주 직후 여성결혼이민자의 단기적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개월 단위로 세분화한 문항 보완
-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학교 교육 경험, 자격증 취득 경험, 서비스 수혜 시기, 기간 등이 포함 된 보다 구체적인 문항 보완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변화 양상의 장기적 관찰을 위해 패널조사나 코호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

제안3) 국내 거주기간 이외 사회통합 진전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대상 선정

- 거주기간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 촉진
을 위한 서비스 대상 집단 설정
 - 거주기간 이외에 개인의 인적자원 수준이나 가족의 계층적 배경,
가족구성, 사회적 관계망, 차별 경험, 서비스 수혜 경험 등이 고려
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가 2000년 중반 이후 본격화 된 점을 고
려하면 그 이전에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가 더욱 클 가
능성 높음.
 - 국내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주 초기 결혼이민자만을 서비
스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서비스 요구가 큰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
제할 우려가 큼.

제안4) 사회통합 진전의 핵심 영향 요인에 대한 조치 강화

- 결혼이민자 스스로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교육수준, 서비스 수혜, 가족 내외의 지지,
사회적 관계망 등을 강화할 필요성
 - 교육수준
 -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여타의 인적 속성과 달리 한국사회에
서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차원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학업
중인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서비스 수혜 경험

- 취업이나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가칭)’를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회 제공

● 가족 내·외의 지지

- 생활세계가 제한된 한국생활 초기에는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 (예비)배우자 대상 교육, 가족 교육 등에서 가족 내·외의 지지 중요성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함.
-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결혼이민자들과의 관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선-후배 결혼이민자 멘토링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

● 사회적 관계망 확대

- 지원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경험을 쌓는 방안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단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이용 차원을 넘어 사회참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통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녀양육 부담과 한국인의 차별에 대한 대처 필요

● 자녀양육 부담 완화

- 자녀 양육 부담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을 위한 자녀보호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지역 보육 공동체 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차별에 대한 대처

- 일반시민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 활성화
- 외국출신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제도 확립

4 기대효과

-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과정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촉발 및 정책의제 구체화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과정을 총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 기반 마련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개입 방안 모색

참고자료



김이선·이아름·이은아(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국무조정실(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